

광주, 창업 인프라 '삼각벨트' ... 스타트업 성공 시대 연다

광주역 허브센터·본촌산단 지원센터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3대 거점

초기 보육·기술 고도화·양산 단계별 맞춤 지원... 내년 6월 전면 개관

광주시가 지역 스타트업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까지 뒷받침할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마무리 짓는다. <관련기사 3면>

이미 운영 중인 광주역 인근의 초기 창업 거점에 이어, 내년 상반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가 잇따라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른바 '창업 지원 삼각벨트'가 위용을 드러낼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과 3월 준공을 목표로 북구 본촌산단과 광주역 창업밸리에 각각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시설은 단순한 사무실 임대 공간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건물 준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필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서 7월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삼각幡대' 완성에 있다.

가장 먼저 광주 창업 생태계의 문을 연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왔다. 내년에 들어설 두 곳의 센터는 기업의 도약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광주역 창업밸리 내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는 기술 고도화(Tech-Up)와 실증의 거점이다.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부지 2970㎡, 연면적 8362㎡(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은 창업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시장 진출 전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1층에는 창업라운지와 카페 등 네트워킹 공간이, 2층부터는 스마트가전 특화 오픈랩과 컨퍼런스룸 등이 들어선다.

특히 3층부터 6층까지는 투자자(VC) 사무실과

30여 개의 기업 입주 공간이 마련돼 투자 유치와 기술 협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성장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곳을 통해 딥테크(Deep Tech) 분야와 티스(TEPS) 선정 유망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딥테크란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공학·과학적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모방이 어려운 첨단 기술을 뜻하며, 티스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매칭해 지원하는 민관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기술력 있는 알짜배기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미다.

북구 일곡동 본촌산단 내에 자리 잡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제조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기지다. 총 449억5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만 4416㎡(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도심의 창업 공간이 주로 소프트웨어(SW)나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곳은 금형과 전자 등 제조 기반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센터 내부에는 80개에 달하는 입주 공간과 함께 시제품 제작실, 스마트팩토리 혁신 제조AI센터 등이 구축된다. 입주 기업들은 본촌산단의 기존 제조 인프라와 연계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소규모 양산까지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시티' 구현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광주시는 초기 보육(창업스테이션), 기술 실증·고도화(복합허브센터), 제조·양산(성장지원센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시는 이 하드웨어 위에 1조원 펀드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더해 '창업 성공 도시 광주'를 실현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이 염가락처럼 흰 철골 구조물과 무너진 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사고 당시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초 건물 준공 이후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기업 입주와 개관은 6~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빛고을 창업스테이션과 복합허브센터, 성장지원센터로 이어지는 3대 거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간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변경 논란 ▶2면

광주FC '원팀'의 새로운 구심점 하승운 ▶18면



전라도 외국인 - 공존 위한 과제 ▶22면

기온 '뚝' ... 내일까지 영하권 강추위

북서쪽에서 밀려온 매서운 찬 공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뚝 떨어져 16일까지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며 전날보다 3도가량 낮아져 0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위는 16일 아침까지 이어져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추위는 17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번 기온 하강은 북서쪽 상공의 차기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찬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아 더욱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15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에 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취약 구간을 지날 때 감속 운행하는 등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기온보다 훨씬 낮아 더욱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15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에 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취약 구간을 지날 때 감속 운행하는 등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온라인 계약금 결제
6년 / 59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종대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Trade-in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